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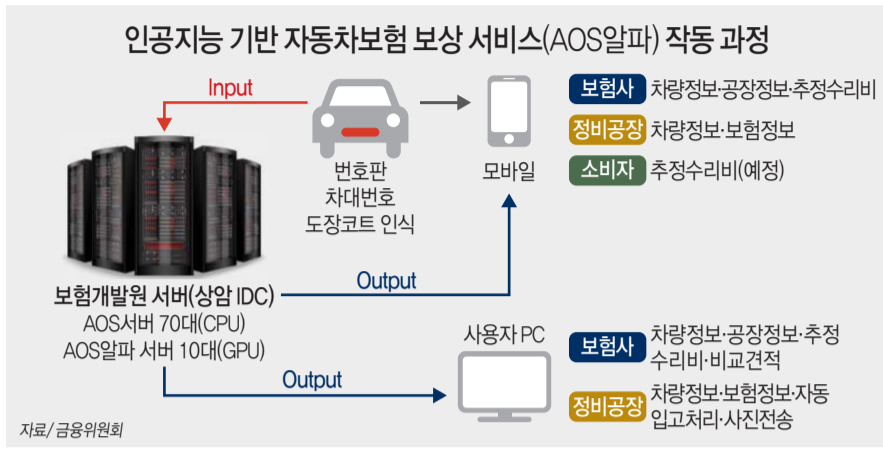
후 파손부위 찍으면 AI가 견적낸다... 금융업 혁신 박차

금융위,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AI가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 판독 보상업무 처리과정 시간손실 최소화

내년부터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손상 상태를 분석해 수리비를 계산하는 서비스가 모든 손해보험사에 도입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경기도 이천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를 시연·체험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언택트(비대면·untact)가 촉진되는 등 변화가



가속화 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이 체험한 'AI기반 차

동차 보험 보상서비스'는 AI가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판독해 예상수리비를 자동 산출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사고차량을 찍어 입력

하면 AI가 차량의 주요 외관부품을 인식, 수리내역과 자동으로 연결해 보상 직원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연관된 사진을 제공한다. AI가 사람의 눈이 돼 차량의 손상사진을 판단 후 수리비 견적을 자동으로 산출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고차량의 사진에서 AI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차량번호를 추출해 보험계약정보와 자동 연결, 보상업무 처리과정의 시간손실을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AI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가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신속·정확하게 산출하고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AI 모델

학습과 기능개선으로 예상수리비 정확도를 향상시켜 정비공장, 소비자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보호의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지속해 달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역량 제고와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친환경 문화 앞장

우리금융, 유기농 간식·텀블러 나눔 매주 수요일 일회용품 없는 날 장려 임직원들에게 받은 중고장난감 기부

우리금융그룹이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우리(WOORI)가 지킨다 시즌 2'를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실시된다. 작년에는 에너지 절약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래시장 에코백 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유기농 간식과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텀블러를 나눠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 두번째), 박필준 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주 수요일 일회용품 없는 '우리 그린데이(WOORI GREEN-DAY)'를 실시한다. 본점 내 일회용품 반입을 제한하고, 계열사와 영업점에서도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장려한다. 또 자원 순환사용을 위해 임직원

들에게 중고 장난감을 기부받아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손태승 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그룹사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사내 친환경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RPA·애자일 조직으로 디지털 혁신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RPA 도입... 연간 약 6만시간 절감

신한카드가 디지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애자일(Agile) 조직'을 화두로 내세웠다.

신한카드는 RPA가 도입 2년만에 카드 모집, 심사, 발급 업무부터 대금 정산, 오토금융, 영업 지원까지 100여 개 프로세스에 적용돼 연간 약 6만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RPA'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다. 로봇이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안 사람은 고부가가치,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신한카드의 RPA는 단순반복 업무

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협업 하도록 개발했다. 업무시간에 접수된 작업을 RPA가 야간에 처리해서 준비해두면, 사람이 후속 작업을 다음날 업무시간에 이어서 하는 방식이다.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부서 간 경계 없이 소규모 팀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연중 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셀(Cell) 조직', 2~3명 규모의 프로젝트 팀 '스쿼드'를 통해 1년 반 동안 6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신한카드 유대현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영 과제"라며 "신한카드는 RPA와 애자일 조직 바탕의 전사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회사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삼성카드

지역특색 살린 상생 캠페인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지역 상생 캠페인 '헬로, 로컬 파머스!(Hello, local farmers!)'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기획했다. 삼성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매입해 상품으로 제작했다. 캠페인 품목인 전북 군산의 '만전 김세트', 경북 문경 수매한 오미자로 만든 '오미베리 오리지널'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패키지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김 세트의 경우 '웃으면 김이 와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를 더했다. 오미베리는 상품명 '베리'에서 착안해 '베리 굿, 베리 웰, 오미베리'로 지역 사회에 대한 응원을 담아냈다.

지역 상생 캠페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지급한다. /이영석 기자

Sh수협銀 해진공·선주협과 해양쓰레기 저감실천

Sh해양플라스틱제로 예·적금

Sh수협은행은 9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이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상품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은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위한 기금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으로 해양환경공단 등에 지원하는 공익상품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KS A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녹색해운 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KSA 직원과 회원사 구성원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수협은행 상품을 가입해 간접적으로나마 해양환경보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6일에는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수협 은행과 손잡고 해양산업의 재건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사회공헌 사업 지원... '하나드림' 론칭

하나금융나눔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금융·ICT분야 진로희망 아동에 교육

하나금융나눔재단이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드림'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드림'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금융·ICT와 같은 특정 진로 교육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조부모와 손자모만 가정인 구형된 조손가정 및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중점 지원한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세이브더칠드

런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향후 1년 동안 총 21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70명에게는 금융·ICT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145명에게는 코딩 교육과 로봇 만들기, 드론 체험 등 체험형 ICT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금융·ICT 인재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